

열림터 생활을 지지하는 방법

- 열림터 생활비의 약 55%만이 국고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구멍나는 가계부를 채워주세요
-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물품으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빛나는 재능으로, 열림터 식구들의 재능을 키워주세요.

이름		연락처	전화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	(우편번호 -) □ 집 □ 직장 □ 기타 ()			
회비	원 □ 매월 □ 비정기 □ 일시			
납부안내	■ CMS 자동이체 • 출금은행 : (우체국과 단위농협은 제외) • 주민번호 : • 계좌번호 : - • 출금일 : □ 매월 10일 □ 25일			
소식지 구독 여부	□ 이메일 □ 우편 □ 수신거부			
특별한 후원	□ 물품후원 : 살림에 필요한 생필품을 물품으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결연후원 : 열림터 가족 중 한 사람과 결연을 맺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재능후원 : 학습지도, 프로그램지원 등의 재능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회비, 기부물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30%)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CMS 출금과 관련된 정보제공동의서는 후원회원가입서로 대신하게 됩니다.

열림터는 이런 곳입니다.

열림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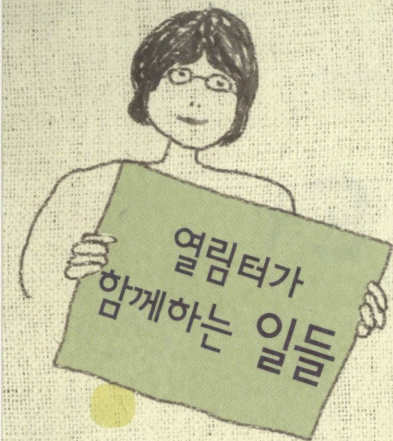
‘모든 성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라는 뜻으로,
1994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친족이나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하며,
안정된 일상을 찾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121-884)서울 마포구 덕일2길 20 2층
전화 : 02-338-3562 | 상담 : 02-338-5801~2 | 팩스 : 02-338-7122
이메일 : yeolim94@hanmail.net | 홈페이지 : www.yeolim.or.kr



성폭력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 의식주 생활을 함께하고
- 집안일은 공동으로 나눠서 해나가요
- 다양한 여성들과 함께 살며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공간
-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생각을 나눠요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 법적 과정을 위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함께해요
- 심리치료, 심리검사 등의 지원을 통한 성폭력 치유하기
- 갈등 상황의 가족관계 개입, 중재 노력을 함께 해요

숨어 있는 나를 발견해가는 여성주의적 성장과 자립을 돕는 지원 및 교육을 함께 합니다

- 성폭력의 사회적 인식 형성, 성평등한 가치관 세우기
-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한 세계 인식의 확장
- 기초 학습 능력 쌓기
-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

친족 성폭력 연구와 매뉴얼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 친족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매뉴얼 발간사업
- 생존자 주변인을 위한 안내와 인식 개선 노력 사업
- 친족성폭력 연구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의식 확장 및 공유

열림터는

생활인들의 안정을 돕고
여성주의적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활력

소통

자율

평등

신뢰

변화



“

성폭력이
성차별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에게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사회에 알려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입니다.

”

사무 02-338-2890~2 | 상담 02-338-5801~2 | 팩스 : 02-338-7122

이메일 : ksvrc@sisters.or.kr |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121-884)서울 마포구 덕일2길 20 2층